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새벽 잡언> -주편-

1. 성령은 자기가 처음에 열심히 회개하고 간구하여 받았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식듯이 식는다. 만물의 이치와 같다.
2. 성령을 겨울철의 어떤 따뜻한 물체를 받은 것이나 혹은 어떤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천모이며,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나 예수가 되기도 한다.
3. 성령님을 예전보다 못 하게 모시면 자동적으로 점점 멀어져 같이 계시지 않게 된다.
4. 손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반갑게 대하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져 흐지부지 대하면 손님은 어느새 떠난다.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5. 성령을 축소시켜 비유하여 말하겠다.

자기 애인이 있는데 잘 대해 주지 못하여 멀리 떠나게 되었다. 떠나간 애인을 보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같이 대하니 애인이 다시 왔다. 이에 기뻐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애인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또 떠났다. 뜨겁게 사랑하며 대해 주지 않으니 멀리 떠나간 것이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니 곤고했다. 이때는 처음보다 더 애인에게 잘못을 고하고, 회심하고, 더욱 뜨겁게 대해야 애인이 그 힘을 받고 오게 된다.

성령을 이같이 이해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성령을 너희 신랑 되는 나 예수라고 생각하여라. 삼위는 동일한 존재다. 물론 각 위로 존재한다. 성령은 어떤 선물같이 한 번 받으면 계속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하는 대로 함께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너희 신랑인 나 예수다.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네가 행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성령이 지금도 너에게 뜨겁게 역사하는지 보아라.